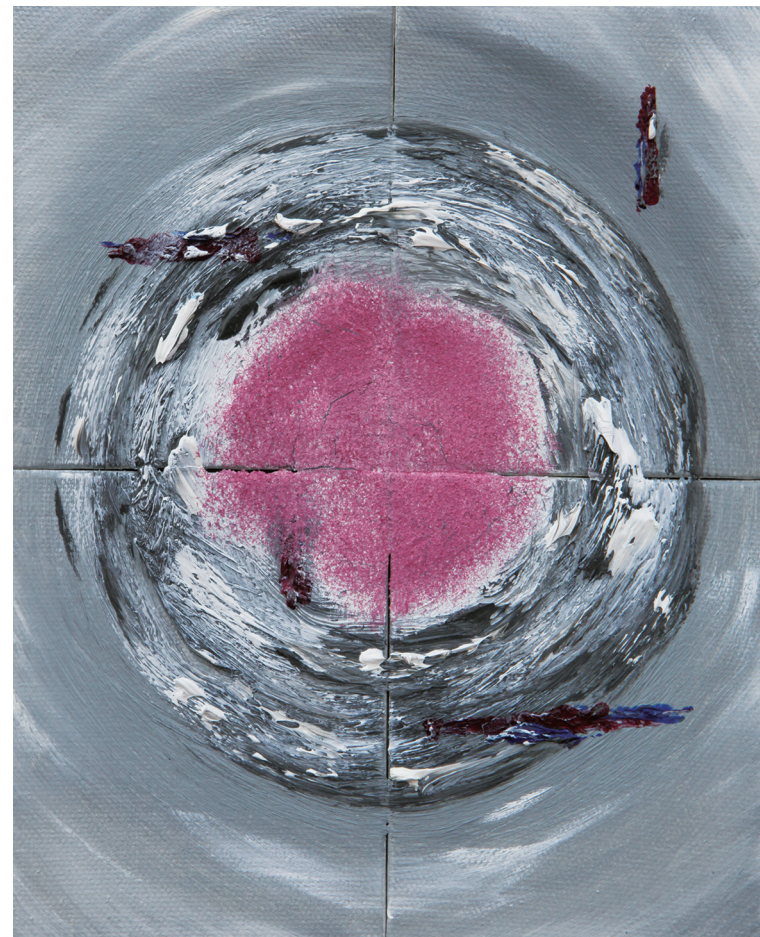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7

성모기사

06



성모기사 | 2017. 06

등록번호 경기 라 00521 / 재단법인 콘베르완 포먼치스코 성모기사회 / Tel : 031-771-6134 / FAX : 031-771-2762 / 발행일 2017. 6. 1. / 통권 제485호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6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예수 성심의 사랑 속에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우리들도 육신의 눈으로 빵과 포도주를 볼 때,
그것이 참되고 살아 있는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라는 것을 보고
굳게 믿도록 합시다.” (권고 1)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구원모	02
프란치스코 성체 공경의 근본 사상 김성학	08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권정대	12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신비 체험 라파엘 디 무로	16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정 - 이다환	20
하늘 나라 박영철	27
말씀묵상 최창원	28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 부활의 신비 - 김민석	30
호주 멜버른에 가다 김옥	39
첫 미사 강론 송대건	44
옥중 시인과 거리의 성인 정영란	50
함께하는 이모저모	56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탈출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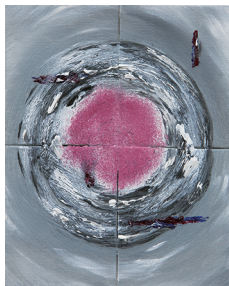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성체와 성혈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곧베푸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코린토 1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코린 11,23-25)

이 가르침은 성찬의 전례에서 늘 반복되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성체와 성혈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마태 28,20)는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의 몸과 피이며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

원히 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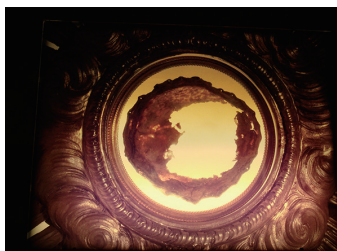
그러나 과연 성체와 성혈이 예수님의 몸과 피일까요? 확신 하십니까?

성체를 모신 후 몰래 뱉어서 부적이나 책갈피로 쓴다든지, 나 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어린 손자나 손녀에게도 성체 달라고 한 다든지 또는 자기가 영했던 것을 뱉어서 나눠준다든지, 주일 미사를 빠지거나 다른 대죄를 지었지만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도 남들 눈이 부끄러워 그냥 성체를 모신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 몰라서 일수도 있지만, 지독한 성체도둑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걸어가면서 과자 먹듯이 성체를 영하는 경우나, 성체 영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과의 친교를 나누지 않고 곧바로 주위 사람들과 떠드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성체성사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1252년부터 오늘날까지 쾰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맡고 있는 란치아노의 성체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아브루조 지방의 란치아노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 그러니까 8세기경 어느 날 바실리오 수도회의 한 사제가 란치아노 시에 있는 성 레곤지아노에게 봉헌된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체 축성을 하면서 그 수도사



제는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현존하고 계신지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제병은 살로 변하였고, 포도주는 피로 변하며 응고되어 각각 다른 모양과 크기의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란 수사신부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어서 미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보여주었고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곧 뛰쳐나가서 이 소식을 란치아노시 전체와 인근 지방들에 알렸다고 합니다.

1970년 의사이자 교수인 오도아르도 리놀리(Odoardo Linoli) 박사에 의해 기적의 성체와 성혈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분석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성체 기적의 성체는 참된 살이며, 성혈은 참된 피이다.
- 둘째, 성체는 심장의 근육조직으로 이뤄져 있다.
- 셋째, 성체와 성혈은 사람의 것이다.
- 넷째, 성체와 성혈의 혈액형은 일치하며 AB형이다.

다섯째, 성혈에는 일반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여섯째, 성혈에는 또한 염화물 · 인 · 마그네슘 · 칼륨 · 나트륨 등의 미네랄이 감소된 양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반면 칼슘은 증가된 양으로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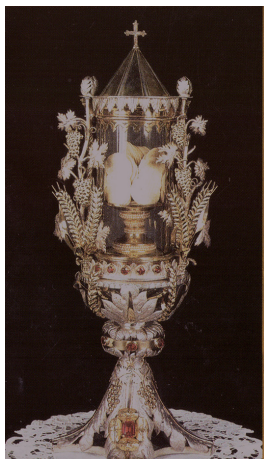
그리고 리놀리 교수는 다음의 설명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첫째, 이 살이 인간의 심장에서부터 해부적으로 잘라온 것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둘째, 그 살과 피를 보존하기 위하여 화학적인 방부 조치를 취한 흔적은 없다.

셋째, 그러므로, 그 살과 피의 단백질과 무기물들이 대기와 미생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절대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 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도 이 현상을 15개월간 확인하였는데, 란치아노의 성체 기적은 유례없으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시에나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성
체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30년 8월 14일에 성모승천 대
축일 기념행사가 시에나에서 거행
되고 있을 때, 비어있는 성 프란치
스코 성당에 도둑이 들어와 축성한
성체가 가득 든 성합을 훔쳐 달아
났습니다. 성체를 도둑맞았다는 사
실이 밝혀지자 신자들은 큰 충격에
빠져 성체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흘 만에 가까스로 찾았지만, 버려진
성체는 이미 먼지 속에서 너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연적으로 부패하도록 놓아두었으나 몇 해가 지나도 성체는 변
함이 없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과학적인 조사를 하였는데, 성체는 어떠한 방부
처리도 되어있지 않고, 그 성분은 갓 구운 제병과 동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이따금 성체를 신
자들에게 영해주어 지금은 223개의 조각이 남아있는데, 2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부패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습
니다.

란치아노와 달리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적의
성체 모습은 우리가 미사성제 때 보는 성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

다. 단지 부패되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미사성제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체는 진실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꼭 살과 피로 변화되어야만 참된 예수님의 몸과 피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깝게 느끼셨는지요?

성체를 영함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체 영하는 자세 - 손 올바로 내밀 것, 걸어가면서 먹지 말고 제자리에 서서 영할 것.

영하는 방식 - 씹어 먹든 녹여 먹든 다시 뱉어내지만 말 것.

성체가 떨어뜨렸을 경우 직접 줍지 말고 사제에게 알릴 것.

성체는 하루에 2번까지 영하는 것이 가능함.

비록 여러 성체 기적들이 일어났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하나, 이를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체와 성혈로 직접 오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실로 성체와 성혈은 십자가 나무의 열매이며 하느님 사랑의 육화입니다.

이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과 늘 함께하시는 우리 참 어머니 원죄 없으신 성모님과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영성제송)

프란치스코 성체 공경의 근본 사상

김성학 사무엘

사제들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봄

역사상 그 누구도 프란치스코처럼 사제들을 깊이 존경하며, 그들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완전한 신뢰심을 지닌 사람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리에서조차도 성인은 지극히 감동적인 말로써 성체 성사와 이 장엄한 신비에 봉사하는 사제들에 대하여 자신의 공경심을 표하였다.

그는 형제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 엄숙한 순간에 레오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케 하였다.

“주님께서 거룩한 로마 교회의 관습에 따라 생활하는 사제들에 대한 큰 신앙심을 주셨고 또한 지금도 주시기에 만일 그분들이 나를 학대한다 해도 그분들이 받은 품 때문에 나는 그분들에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정도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속화된 어떤 불쌍한 사제를 만난다 해도 그분들의 뜻을 벗어나 그들이 거주하는 본당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또

다른 사제들을 마치 나의 주인인 듯이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뵈고, 그분들이 나의 주인이므로 그분들 안에서 죄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제 자신들도 성체를 영하고 사제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드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언 6-10)

성 프란치스코는 앞의 구절에서 사제가 성체를 영하고 분배하는 기능적인 면을 말하며, 이 안에는 사제의 본질적인 사명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영하고, 또 다른 이에게 분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임을 내포한다.

성체와의 일치의 삶은 모든 차원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성직자를 존경해야 하고(권고 26, 1), 모든 신학자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넣어 주는 사람들로서 받들어 존경하라고 한다. (유언 13)

당대의 사회에는 사치와 탐욕, 무절제함, 거룩한 미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이 팽배해 있어 신자들은 추악한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다. 성직자의 타락은 심했으며,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런 점을 비판한 일부 종교 개혁 운동가들은 반성직주의

(Anticlericalism) 논리를 펼쳐 교회에 반기를 들었다. 이단자들은 사제들의 죄에 대하여 떠벌리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성체 성사를 거행하는 것은 사제이지, 그 사제가 범한 죄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부패된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사제를 존경과 신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교회를 옹호하며 교회에 순종하였다. 성체는 성 프란치스코의 생활 중심이 되었다. 성체에 대해 공경과 경배의 자세를 가졌으며, 귀중한 장소에 모시기를 원했다.

성 프란치스코가 교회에 끼친 중요한 영향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사제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전하기에 최대의 존경과 사랑을 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사실 “주님 자신께서 이들을 판단하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만 유보하기에 아무도 이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권고 26, 2)

성 프란치스코는 사제에 대한 존경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는 성당에 자주 들르고 성직자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비록 그분들이 죄인들이라도 우리는 오직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다만 제대에서 축성하여 자기도 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해주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에 대한 직책과 봉사직 때문에 말씀과 피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더

구나 다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고 그들만이 이런 봉사를 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Ⅱ 33-35)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고 그들만이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하느님 은총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고 교회에 정면으로 도전한 당대 이단적 복음 운동가들의 잘못을 반박하고, 사제에 대한 존경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내용이다.

한편 성인은 많은 성직자가 성체의 거룩한 신비를 소홀히 다루는 것을 마음 아파했기에 이점에 관해서 간곡히 부탁했다. 즉, 성체 성사를 거행할 사제에게는 죄가 없어야 하는 것 외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낮은 자로서 겸손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성체 성사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강생과 수난의 비하를 이 지상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신비이기 때문에 이 신비에 참여하는 사제는 겸손과 포기를 통해 드러나는 작음이 있어야 한다.(형제회에 보내신 편지 14, 21-22, 27-29) 사제들에게 이러한 성체성사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도록 권고할 때이면 그는 신자들이 엿듣지 못하도록 사제들을 개인 방에 모아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 신자들 앞에서 사제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완덕의 거울 56)

폰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부산 기장성당 주임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권정대 베드로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나타난 마리아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리아론은 그의 신학 사상과 신심에 기반을 두었으며, 교황명이 시사(示唆)하는 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사명과 목적을 구현하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교황의 마리아론은 특히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황의 마리아론은 문헌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 안에 마리아의 역동적 현존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하나의 깨달음으로 해석하였다. 만일 마리아가 그의 신학적 생각에서 지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교황직 표어로 'Totus Tuus'(오 성모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를 선택했음지라도 교황이 신학을 마리아론으로 가치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임기 중 이 개념을 끊임없이 생각하였고, 여러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다수의 신학적 고려들과의 관계 또한 분석하였다. 그의 발표 자료의 현상학적 방법을 고려할 때, 그의 사고가 너무 반복적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언뜻 개념을 반복하는 듯 보이나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교황이 여러 다른 관점들 중에서 하나의 개념을 찾기위해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며, 교황은 「교회 헌장」 8장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자료들을 해석하였고 공의회 이후의 마리아론이 새롭게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리아에 대한 관심은 많은 신학자와 신자들로부터 그가 ‘마리아의 교황’으로 보이게 하였다. 우리 동시대인들 모두 교황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성사 때 한 약속에 따라 충실히 살 수 있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봉헌할 것을 제안한 성 루이 마리 그리농드 몽포르(St. Louis Marie Grignon de Monfort)를 상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생각을 분석해보아야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리아론이 그의 임의적인 정서에서 비롯된 피상적인 성모 신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신학과 철학에 관한 깊은 학식이 마리아 통찰에 영향을 주고 그의 그 어려운 ‘몸의 신학’ 논리에 마리아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회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

해 발표한 교도지침은 곧 회칙「구세주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회칙은 문장에 표현된 그의 사목 계획을 장황하게 신학적으로 주석하고 있으며, 공의회에 지침을 해설함은 물론 교황의 신학 사상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다. 한마디로 이 회칙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한 신앙의 나그넷길 안에 신앙의 여인, 십자가의 마리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회칙의 특성

회칙「구세주의 어머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논리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문헌으로 신약성경과 교부들에 의해 발전된 마리아 교리를 성경·신학적으로 깊이 다루고 있다. 동시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새로운 빛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이라는 표현을 통해 천사가 “은총이 가득한 이여(루카 1,28)”로 찬미한 마리아의 가장 내밀한 실재를 이해하는 일종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교황은 신앙의 나그넷 길에 있어서 동정 마리아의 모성적 현존을 두 가지 방향, 곧 신학적 방향과 사목 및 영성적 방향에 따라 설명한다.

동정 마리아는 실제로 교회 생활 안(곧 교회 생명의 시작(육화의 신비)과 생명 형성 과정(가나 및 십자가의 신비) 및 생명의 표현(오순절의 의미))에서 현존한다. 다시 말해 그는 “순례하는 교회의 중심부”

에 있으면서 교회사를 통해 실제적인 현존이 되고, 은총 생활 안에서 신앙인의 출생에 협력한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모범이 됨과 “어머니의 중재” 역할의 수행이다.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요한)를 어머니께, 또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신 행위(요한 19,25-27)로써 마리아와 교회 간의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였다. 주님의 뜻은, 마리아의 특징을 교회의 특징(physiognomy), 교회의 여정 및 교회의 사목 활동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황은 ‘마리아의 차원’(Marian dimension)이 각 제자의 영성 생활에 본질적(고유적)인 것임을 언급한다.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는 전반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신앙의 여정과 주님께 대한 경배, 복음화 작업과 점차적인 그리스도 예로의 동화 및 일치에 열정에 있어서의 마리아의 능동적 현존에 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신비 체험

라파엘 디 무로 (Raffaele Di Muro)

콜베 신부의 신비 여정

성 막시밀리아노는 신비적인 단계와 순교에 도달한다. 그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4년 동안에 마리아적인 신비의 일치가 완전히 실현되었다. 그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과 그의 일치에 도달한 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일치로 인도된다. 성인을 영성적 완성의 단계를 향하여 안내하는 분은 성모님이다.

동정녀와 깊이 일치하여 산다는 것은 그에게 변화의 일치를 위하여 필요한 은총들을 얻는 것은 물론, 그녀를 모방의 변함없는 기준점으로 삼는 것을 허락한다. 폴란드 순교자는 일치 후에 그녀와 함께 신비 체험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정점에 도달하는 신비 생활의 통로가 되는 마리아의 두 손 안에 전적으로 의탁한다.

이 단계의 결실들은, 시성 과정에서 증언하면서, 그의 죽음 이후 동료수사들이 정확히 언급하고 있듯이 체포와 추방의 위협에서도 원죄 없으신 성모의 마을 안에서 체험된 평온함과 주님에게서 직접 성인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보증에서 나타난다. 성 막시밀리아노는 강제수용소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의 감방에서도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고 있다:

큰 놀라움과 함께 그에게 치명적인 독약을 주사한 교도관들은 이러한 점을 거의 변모된 빛나는 모습에서 깨닫는다. 콜베 신부는 순교자일 뿐만 아니라 아우슈비츠의 신비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과 위험한 조건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폴란드 성인이 신비적 단계에 도달했음을 드러낸다.

다음 도표는 신비주의 분야의 거장이며 교회 학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용어로 콜베의 체험을 “표현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십자가의 성 요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오롯이 봉헌하도록 부름 받음. 수도회의 위기에서 비롯된 신학원에서 경험한 시련들의 극복.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설립.	신적 사랑, 창조를 필요로 하는 단계. 역사, 구원, 교회, 세례, 회개, 포기과 성장을 위한 시도들. 신, 망, 애를 살고 견고히 하는 단계. 감각의 능동적인 밤 - 감각의 수동적인 영혼의 밤 - 관상. 모든 것의 맛을 잃는 위기: 하나님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구와 그 맛. 신, 망, 애 안에서 걸어가는 인간.
사도적, 영성적 성숙.	신학적 통합. 신, 망, 애의 성숙을 위한 그리스도교 생활의 절대적인 지속성.
정화: 자코파네 Zakopane	영혼의 수동적인 밤. 치명적인 고통: 불완전의 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존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지는 인간.
마리아적인 신비의 일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 심리학적, 윤리적 그리고 신학적 진보에서 오는 거룩함. 하나님과의 일치 - 사랑의 교환

위 도표를 보면 성 막시밀리아노 안에 신비 박사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해 신학적으로 표현되고 체험된 신비 여정의 모든 요

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폴란드 성인 이, 신비 생활과 순교를 경험하도록 이끄는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통하여, 양성기와 자코파네에서 폐결핵을 치료하며 체험한 시련들로 증명되고, (감각의 그리고 영혼의) “밤”의 단계들로 특징 지워지는, 하느님과의 점진적인 일치의 여정의 정점에서 변화의 일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위에 보이는 도표는 가르멜 학파의 대표적이고 영성 신학의 전통적인 “규범들canoni”에 비추어서도 인준되고 완벽한 성 막시밀리아노의 신비 여정을 강조해주고 있다.

성 막시밀리아노의 영적 체험을 살펴봄으로써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신비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하느님과의 변화의 일치, 즉 “신화(神化) divinizzazione”라는 용어로 정의되는 그분과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콜베 신부의 신비 생활은 끊임없는 고행과 관상에 이르는 긴장의 과정을 거쳐 완성으로 발전하고 도달한다.

이 폴란드 성인은 경험한 모든 것과 회개에 대한 항구한 열망의 자세 안에서 신적 현존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영적 여정을 지속했다. 신적 현존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탐구자는 기도, 하느님의 말씀과 사건들에 대한 주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신비에 대한 묵상, 그리고 거룩한 미사와 교회의 전례에 대한 열성적인 참여를 통하여 확고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추구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언제나 보다 순수하고 완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밤” 또는 정화의 단계로도 묘사되는, 이 여정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중재 덕분에 하느님과의 신비적 일치를 체험하도록 그를 이끈다. 그의 신비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에 대한 봉헌의 결실인 그녀와의 깊고 총체적인 만남으로 예정되고 촉진되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직접적이고 중재 없는 만남으로서 마리아적 신비이다.

결론적으로, 성 막시밀리아노는 진정한 신비가이다. 비록 다수의 초자연적 현상들을 경험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한 기준점인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안내 아래 끊임없고 변화되는 관상과 수덕의 여정의 결과인 그리스도교 완덕에 다다른 이가 말하는 하느님과의 신비롭고 애정 어린 친교 안에서 솟아나는 완덕의 여정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관을 주는 성모님의 환시는 폴란드 성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하느님께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하여,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콜베 신부의 영적 체험의 고유하고 참된 신비적 단계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일치의 전주인 모든 단계를 달성하던 시간 안에 성취된다. 그는 아우슈비츠의 신비가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깊고 친밀한 그의 일치가 죽음과 고통의 이 참혹스러운 장소에서조차도 계속되고 빛나기 때문이다.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토마 세라피움 국제 신학대학 교수
역: 한규희 보나벤투라 신부,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정 -

이다한 스테파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2주년을 맞아 회칙의 가르침과 정신이 가톨릭 교회와 세상 안에 더욱 널리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국제가톨릭기후운동(The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의 사무총장 토마스 인수아(Tomás Insua)의 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BRINGING LAUDATO SI’ TO LIFE)”을 소개합니다.¹

이 글은 2016년 9월 28일, 교황청 과학원에서 개최된 세미나 “<찬미받으소서>와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를 향한 길”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COP22 총회와 그 이후의 과정들에 가톨릭 교회가 참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가르침이 될 회칙의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급성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저는 이 회칙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규모와 긴급성, 그리고 매력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찬미받으소서〉 15항)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1) <http://catholicclimatemovement.global/>

실제로 회칙은 발표되고 몇 달 후인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파리 협정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강한 윤리적 의무감을 복돋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찬미받으소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실천하고 인류 가족에게 기후 위기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계속 일깨우는 것은 가톨릭 교회(교계 지도층과 평신도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세계의 종교인들에게는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이에 관해 과감한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구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찬미받으소서>는 가톨릭 공동체가 스스로의 변화를 실천하면서 모범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는 기후 위기의 규모와 긴급성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 더 폭넓게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가족은 “우리의 공동의 집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급속한 변화와 훼손으로 상황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표징들”을(<찬미받으소서> 61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계는 기후 위기의 인위적 요인에 대한 매우 강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행동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에 대해 목소리

를 내왔습니다.²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강한 영향력을 지닌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이 “지구적인 공동의 문제”가 갖는 복잡한 특성 때문에 전 세계의 정부들로부터 의미 있는 동조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삼십 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제 신앙 공동체들이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호소해야 합니다.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지구 표면 기온과 빠르게 줄고 있는 북극해 얼음 면적 때문에 문제의 시급성은 슬프게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³ 그렇지만 대다수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개념을 새로 정의”(〈찬미받으소서〉 194항)하고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 합리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 대신에 엘리트들은 계속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성장”(〈찬미받으소서〉 193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점진적인 대체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찬미받으소서〉 165항)는 사

주2) J. Cook, et al, "Consensus on consensus: a synthesis of consensus estimates on human-caused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Vol. 11 No. 4, (13 April 2016).

주3)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2016 Climate Trends Continue to Break Records" (19 July 2016); available at www.nasa.gov/feature/goddard/2016/climate-trends-continue-to-break-records

실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를 극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새로운 화석연료 기반시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류’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컨설턴트 리스타드(Rystad)의 최근 보고서는, 현재 사용 중인 탄광, 유정, 가스정들이 지구 기온 상승을 50대 50의 확률로 한계점인 섭씨 1.5도 밑으로 유지하면서 ‘안심하게’ 태울 수 있는 양보다 2.67배 더 많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기에 얼마나 극도로 해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⁴

달리 말하면, 만약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찬미받으소서〉 49항)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세계는 화석 연료 산업이 하고 있는 현재 추출 작업의 거의 2/3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개발되지 않은 넓은 매장량까지 고려한다면 그 정도는 더 커집니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 한계점 미만으로 유지하려면 아직 추출되지 않은 매장량의 85%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후 정의의 추구는 확실히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계속)

주4) Oil Change International, "The Sky's Limit: Why the Paris Climate Goals Require a Managed Decline of Fossil Fuel Production" (22 September 2016); available at priceofoil.org/2016/09/22/the-skys-limit-report/

언론(言論)의 의미에서 바라본 디지털 미디어와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나

홍민용 알로이시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식별의 기준은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49차 홍보 주일 담화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소통의 의미를 곁에 있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더욱 다가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커다란 도전은 단순히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의 영향력 있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은 정보의 생산과 소비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보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도 흔히 정보가 사실들을 단순화시키고, 다양한 입장과 관점이 서로 맞서게 하며, 사람들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보기 보다는 한 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담화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소통'이라는 단어이다. 물론 담화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교황께서는 가정의 중요성과 그 안에서의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는 결국 매체들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활동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디지털 매체 사용과 소통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소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소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고 두 번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의미나 두 번째 의미나 크게 그 뜻이 다르지는 않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고, 서로 오해하거나 다투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소통이 디지털 매체 안에서 어떻게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담화문을 보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커다란 도전은 단순히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디지털 매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바로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는 또한 콘텐츠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것이 오늘날 디지털 매체가 우리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며, 사람들은 그 활동 속에서 또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게 된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라는 점에만 집중하게 되면, 수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정보의 생산자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거나, 또 대부분의 또는 특정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보들을 생산하게 되고, 정보의 소비자들은 어느 것이 진실하고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전에 그런 것

들만 찾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황님께서는 분명히 매체의 정보 생산과 소비 이전에 대화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 즉 소통 없이는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엔 오해나 다툼, 분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보의 공유,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확히 잘못된 모습이다. 대화와 이해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식별력의 기준인 ‘복음 선포’와 두 번째 식별력의 기준인 ‘정의와 사랑’과 그 뜻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문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소통의 의미를 곁에 있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더욱 다가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공간이 아니기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나의 이야기만 일방통행으로 전달하는 그런 가상의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대신 서로 더욱더 존중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더욱 가까이하고자 하고 친밀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콘네티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미국 보스턴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미디어를 통한 복음선포에 힘쓰고 있다.

하늘 나라

박영철 요셉

작은 형제들은
말을 하되 가려서 하며,
행동을 하되 조심하며,
벗을 위해 자신을 내어 줍니다.

분열보다 일치를 찾고,
어둠보다 빛을 찾고,
슬픔보다 기쁨을 찾고,
자신을 위하기보다,
벗을 위하는 형제들

작은 형제들은
서로 아파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의지하며,
님 보시기에 참 좋은,
작은 하늘 나라를 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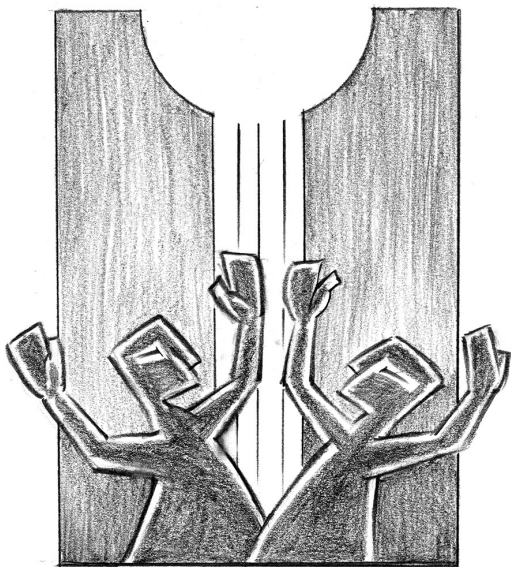
자그마한 집이지만,
오순도순 행복하지요,
나눔을 나누는 향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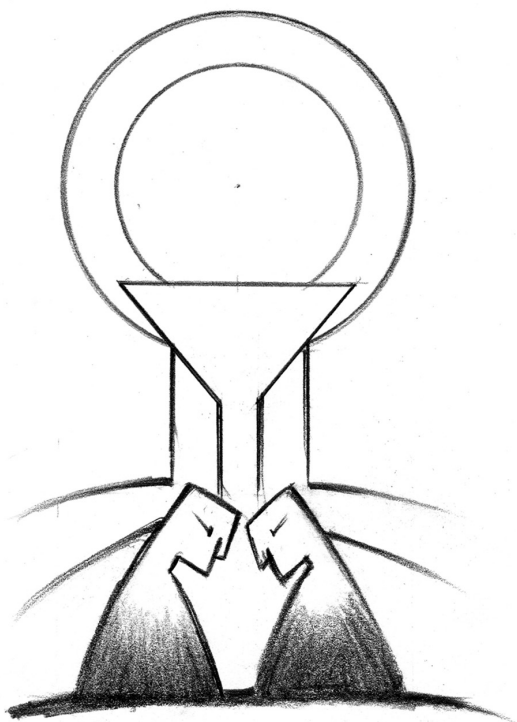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 강림 대축일 복음환호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
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영성체송)

간장종지 화가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 부활의 신비 -

김민석 안젤로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이하 ‘안드라 주’)에서 3주간 머문 후, 다음 목적지인 콜카타(Kolkata)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상이 걸렸다. 4월 중순에 시작되던 폭염이 3월 중순에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였는지 찜통더위로 며칠 동안 통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인도 형제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콜베수도원 Alfred 원장 신부님께서도 폭염 때문에 위험하니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라고 호출하셨다.

나는 곧장 Jane 신부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케랄라(Kerala)’주로 내려갔다. 기차를 타기 전부터 심한 두통이 밀려왔다. ‘더운 날씨 탓인가?’ 얹힌 데 덮친 격으로 기차에 좌석이 없어서 긴 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다. 다행히 새벽에 자리 하나가 났다. 신부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양보해주셨고 본인은 꽤 오랜 시간 뒤에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로마, 세라피쿰(Seraphicum) 신학대학교에서 유학 중에 휴가차 인도에 오신 Jane 신부님께서서는 이번 ‘안드라 주’ 체험 내내 옆에서 안내해주시고 지도해주셨는데, 나를 만난 이후로 계속 고생만 하시는 것 같다. 기차 안에서 두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나에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한국에 돌아가면 오늘 고생한 것들 꼭 생각날 거야.”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3월 마지막 날 저녁, 콜베수도원으로 돌아왔다. 신학원 형제들이 모두 반겨주며 너나 할 것 없이 ‘안드라 주’ 체험이 어땠냐고 물어왔다. 꼭 내 집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역시 집 밥이 최고야’라고 생각했던 걸 보면 정말 그곳이 내 마음의 집이었던 가보다. 그리운 콜베수도원!

부활대축일을 며칠 앞둔 성주간 수요일 새벽 미사에서 한 아기가 힘없이 픽 쓰러졌다. 콜베수도원에 온 이래로 벌써 세 번째 목격하는 것이다. 아기가 쓰러진 이유는 영양실조 때문이었다. 한참 성장할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다. 내가 경험한 인도는 대부분의 사람이 매우 가난하여 제대로 끼니조차 때우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다. 한 동네의 대부분의 땅을 단 몇 가정이 모두 소유하고 있을 만큼 빈부격차가 심했다.

몇 가지 기억들이 스쳐지나간다. ‘안드라 주’를 오가며 만났던 수많은 구걸하는 아이들, 무엇인가를 팔아달라고 애타게 애원하는 형제, 자매들…. 지구 반대편에서는 옥수수 값이 내릴까 봐 그 아까운 음식을 바다에 갖다 버리고 있는데, 이곳에는 많은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하느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인가? 우리가 불공평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

예수부활대축일 미사는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많은 동네 신자들이 콜베수도원 안쪽 마당으로 몰려왔고, 우리는 며칠 전부

터 정성껏 만들어놓은 예수님께서 문혀계셨던 돌무덤 세트의 화약에 불을 붙여 장엄한 부활미사의 시작을 알렸다. “캉!” 하는 큰 화약 소리와 함께 힘 있게 열여섯히는 돌무덤의 문은 죽음을 쳐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미사는 수도원 전체를 한 바퀴 도는 행렬과 함께 점점 무르익었고, 모두들 미사 내내 부활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세상 어떤 축제도 이보다 가슴 찡할 수 있을까.

미사 후 우리는 콜베수도원의 전통에 따라 2인씩 짝을 지어 신자 가정을 방문했다. 이는 부활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Abi 형제와 한 조가 되어 수도원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갔다.

많은 신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도착하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전혀 달랐다. 거의 모든 집이 우리나라 초가집을 연상케 할 만큼 가난했다. 칙칙한 전기 불, 지붕이 있는 듯 없는 듯 나무판자로 대충 덮여져 있는 천장, 어디서 주워온 것만 같은 살림살이들. 그래서인지 가정방문을 온 것 자체가 미안했다. 방문하는 곳곳마다 우리를 위해 차나 바나나 등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한 가정에서 공사장에서 일 하다가 떨어져서 하반신이 불구가 된 청년을 만났다. 그 한 맺힌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과연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니 인도의 길거리에서 유독 다리 저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는 분명 환경 탓일 것이다.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 될 수밖에 없는 빈자, 약자들의 삶의 환경….

영양실조로 미사 도중에 쓰러진 아이의 집도 방문할 수 있었다. 다른 가정들보다도 훨씬 사정이 좋지 않은 이 집에서도 생각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나와 Abi는 주머니 속에 있는 용돈을 탈탈 털어 몰래 탁자 위의 접시 밑에 두고 나왔다. 그래도 내 마음이 허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음 집에서는 아주 반가운 이를 만날 수 있었다. 매일 같이 열심히 새벽 미사에 나오는 자매가 우리를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마루에 걸려있는 가족사진은 특히 그 안에 잘생기고 늙름한 두 아들의 모습 때문에 더욱 빛났다. 나와 Abi는 두 아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쭙어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자매는 모든 대답을 과거형으로만 대답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다. 두 아들 모두 불의의 사고로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실을….

자매는 붉어진 눈시울로 두 아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갔는지 이야기했다. 사진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자매를 보면서 나는 또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가슴속에 묻는 어머니의 심정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끝내 우리의 눈시울도 무거워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는가? 왜 이토록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고 슬퍼하는 이들도 많은가? 이

들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소박하고 착하게 살아 온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러한 고통들을 허락 하셨는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욥에게 끝내 하느님께서 찾아오시지만, 그분께서는 “내가 사랑해서 그랬어, 미안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분께서는 한마디로 “네가 뭘 아느냐! 닥쳐라”라고 말씀하신다. 욥이 이 모든 고난을 겪은 후 다시 같은 수의 자손을 보고 죽었다고 하지만, 과연 욥은 잊을 수 있었을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잃어야만 했던 일곱 아들과 세 딸을...(욥기 1,2,19; 42,13).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 같다. 슬픔을 아는 존재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존재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슬퍼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더욱 값진 것일지도 모른다. 선한 이들에게 닥친 불행은 어쩌면 영원히 풀지 못할 신비, 평생토록 묵상해야 할 주제일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행’이 ‘그들’의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게끔 예

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며칠 후, Manoj(남편), Ceemol(아내) 부부로부터 편지가 왔다. 1월 중순에 부제 Pradesh 형제와 본당실습을 나가서 알게 된 교리교사 부부인데, 그들은 10년 넘게 노력했지만 40대 후반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은 기도부탁이었다.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작은 편지와 함께 ‘성가정 상’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 답장이 3개월 만에 온 것이다. 편지의 주요 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운명(아이를 낳지 못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서로가 있고, 또 본당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들을 잘 돌보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부디 인도체험 잘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Manoj, Ceemol 부부 올림-

편지봉투 속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줬음직한 작은 초콜릿 몇 개도 함께 들어있었다. 나는 이렇게 내 방 책상 앞에 앉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부활’을 체험했다. 그것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게 하는 ‘희망’이었다.

우리는 늘 삶 안에서 캄캄한 밤과 어두움을 체험한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고독과 적막 속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면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곁에 다가와 작은 ‘희망’이 되어준다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작은 빛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빛. 이것이 바로 '부활'의 다른 이름, '희망'이다.

나도 신학교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 절망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작은 빛으로 용기를 내어 수도회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그 작은 희망을 통하여 수도생활과 함께 인도 체험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로만 알았지만, 나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었다는 것을, 고통 속에 감춰진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이 곳 인도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

수도회에 입회한 후에도 많은 수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 사랑과 관심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양평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에 처음 파견 갔을 때 이창우 안드레아 수사님께 서 해주신 말씀이 나에게 내려진 첫 번째 빛이었다.

“안토니오 성인께서도 다른 수도회에 살다가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안젤로! 너무 주눅 들지 말고 기쁘게 수도생활 시작하길 바란다. 기도 중에 안젤로 기억 할 테니까 힘내라!”

수사님의 그 한마디는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힘들 때마다 자주 꺼내보는 내 가슴속 작은 희망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마음이 부서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 주고 싶다.

주님께서 고통 안에 선물을 감추어 두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며 살게 하기 위함 일 것이다.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희망’이 되어주고, 끝내 ‘부활’이 되어 주는 것이다.

인내의 시간이 있기에 영광의 순간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뼈아픈 고통을 겪었기에 용서가 우리 삶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 버림받아 봤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도 알게 된다.

늘 고통 중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나병환자와의 입맞춤을 통해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예수님께 응답하신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이제는 내가 응답할 차례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희망’과 ‘부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Andra 주, 본당 복사단 아이들과 함께



Andra 주, 저녁-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끈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

호주 멜버른에 가다

김옥 다윗

호주 멜버른에는 두 개의 한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멜버른처럼 큰 도시에 너무 적죠. 한인 잡지들을 보면 개신교회는 많은데, 성당 전화번호는 딱 두 곳밖에 없어서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신자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한인 공동체가 생겨났으면 합니다.

한인 본당이 별로 없어서 신자 대부분은 미사 참례를 위해 차를 타고 옵니다. 보통은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면허가 없는 신자 중에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2시간이 넘게 걸려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기차가 갑자기 서거나 버스가 시간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차를 타다 보면 갑자기 서서 30~40분 동안 마냥 기다려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담담하게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게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호주의 대중교통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처음 와서 차가 좌측 통행하는 교통법규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운전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다른 한국인 수사님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버스를 탔는데, 전기를 아끼는 건지 길 거리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시

간을 안 지키는데다가 실내방송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언제 내려야 할지 너무 불안했습니다. 겨우겨우 수도원을 찾아가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초행길은 꼭 운전해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역시 대중교통은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은 제가 사는 수도원과 사목하는 곳이 달라서 차로 출퇴근(?)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수도원과 함께 있는 본당에서만 사목했기 때문에 미사 봉헌하러 가는 길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차로 20분을 넘게 달려야 하기 때문에 성당으로 미사 봉헌하러 가는 길은 출근길,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길은 퇴근길 같아서 마치 직장인이 된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사부님께서 수도회 회칙에서 말을 타지 말라고 하셨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대식 말을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해외이기 때문에 외제차를 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형제들의 지나친 배려로 국산차를 타게 되어 해외에서도 국위선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호주에서는 자동차가 우리나라보다 1.5배 비싸다고 합니다.

운전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저 혼자만 쓰게 되는 개인 전용(?)인 차가 생겼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수도원과 본당이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신자들이 좀 더 편하게 저를 찾아올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한인 신자들의 초대를 받아 만나러 갈 때는 늘 운전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금주하게 됩니다. 돌아

오는 길에도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를 할 수 없어서 건강에 필요 이상(?)의 도움이 됩니다. 어제도 체육대회가 끝나고 정말 한잔하고 싶었지만, 맥주 한 잔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얼른 이곳에도 대리운전이 생겼으면 하네요.

멜버른에서 한인 신자로서 신앙생활의 조건이 그다지 좋진 않지만, 하느님을 향한 신앙으로 지혜를 찾고 사랑을 배우기 위한 신자들의 열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더 멀수록 신앙의 거리가 더욱 가까움을 느낍니다. 비록 우리만의 성당도 없고, 여유롭게 앉아서 머물러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은총은 더욱 가까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멜버른의 성당에는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당처럼 유아방도 없고 주일학교와 교리교육을 위한 커다란 교육관도 없습니다. 미사 시간에 덥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생전에 갖은 고생을 다 겪은 라자로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리고 부자는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조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생활 하

기 참으로 편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설, 잘 갖추어진 시스템 안에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들이 진정으로 신앙적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영적인 자만에 취해서 겸손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불편하지만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들으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참된 신앙생활임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자들의 선익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자들을 주님께로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전유신 스테파노 형제가 오블라티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신앙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멤버론 대교구 안에서 교포2세출신 한인성직자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커다란 땅덩어리에 작은 공동체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으로 실현되는 사랑을 거름 삼아 더 많은 성소

자가 이곳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호주 멜버른 한인성당 주임

첫미사강론

송대건 대건안드레아

평화를 빕니다!

저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에 사제서품을 받은 송대건 대건 안드레아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도 요한 성인 축일에 사제로 수품되고, 1월 1일 천주의 모친 대축일에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선택한 서품 성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처럼 주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길지않은 삶이지만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 저를 꾸준히 이끌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7월 5일, 김대건 신부님 대축일에 순천 성 가롤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수녀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수녀님께서 전날 밤에 꿈을 꾸셨는데 다음날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 가운데 첫 번째 아기에게 이름을 대건으로 지어주라는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다음날 수녀님께서 출근해보니 제가 아침 8시 30분에 첫 아이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수녀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오셔서, “오늘은 한국 최초의 신부님이시자 순교 성인이신 성 김대건 안드

레아 신부님 대축일이라는 날인데, 혹시 아이 이름을 대건으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으셨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시 천주교 신자는 아니셨지만, 할머니께서 독실한 신자분이셔서 수녀님께 감사히 이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름은 대건으로 지었지만, 유아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가수 송대관 씨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지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따라 몇 번 미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어린 나이에 할머니와 교중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스무살의 어느 날 여수에서 순천으로 운전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너무 졸려서 그만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을 했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차 계기판에는 눈금이 130 킬로미터를 가리키고 있었고, 차는 중앙분리대를 받을 찰나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운전대를 우측으로 틀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차량이 없어서 차와 저 모두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고, 저는 그때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구

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다음 주일에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스스로 참여했던, 첫 번째 미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타지에서 고향 집에 온 느낌, 혹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주 편하고 포근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너무 좋아서 성당에 자주 나갔습니다. 10개월간의 교리 끝에 2003년 12월 6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사를 빠지지 않고, 청년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1년쯤 지나자 문득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당생활이 정말 즐겁고 기뻐지며 매번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내가 사제가 되어 매일 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제 성소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달 일정으로 중국 배낭여행에 갔는데, 이곳에서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산둥성 청도에서 내려서 비단길을 따라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중국어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중 반쯤 중국 서북부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라는 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 9시 정도에 야시장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사먹으러 나갔었는데 길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5~6살 정도밖에 안 된 꼬마들인데 어떤 아이는 손가락이, 어떤 아이는 팔이, 또 어떤 아이는 발이 없는 등 신체 불구인 아이들이 빈 깡통을 앞에 두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봉고차가 한 대 오더니 이 아이들을 하나씩 태워 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아이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 있어서 이 아이들을 소위 앵벌이 시키는 것이지요.

추후에 들은 바로는 그 아이들 대부분이 다른 도시에서 납치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1가구 1자녀 정책을 써서 둘 이상을 낳아 호적에 올릴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기에 한 아이만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정책과 달리 중국은 농업 국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아이를 여럿 낳는데, 그 가운데 한 아이(대개 큰 아들)만 호적에 등록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호적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의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유괴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납치범들은 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하여 아이들 신체 일부를 자르거나 손상해서 구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마치 지옥에서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성치 않은 것도 힘들 텐데,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고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 사제가 되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도회에 입회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소 담당 신부님께서 수도회에 입회하거나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례 후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2년 후에야 입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일본어에서 중국어로 바꾸고 2년 동안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며 3년을 채우고 바로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사제가 되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하느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고, 부르셨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다수의 신자분들은 이런 제 스토리를 들으시고 제가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확실한 하느님 체험을 했으며, 조금은 드라마틱한 성소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은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줄을 운전하다가 아무 사고 없었던 일, 많은 운전자가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그러한 아이들을 저 혼자 봤을

까요? 아니겠지요. 수십만, 수백만의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봤을 것입니다. 두 체험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겸손하게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옥중 시인과 거리의 성인

정영란 마리아네스

지난 해 연말 파리의 경매장에 추정 감정이 5만 유로로 나온 어떤 권총 한 자루가 놀랍게도 그 여덟 배를 상회하는 43만 유로를 넘는 금액으로 그러니 5억원 이상에 어느 한 수집가에게 낙찰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바로 19세기 말 ‘저주받은 시인’으로 유명한 베를렌(1844—1896)이 범행 당일 아침에 사서 불안과 동요의 핫김에 방아쇠를 당긴 권총이다(시인의 출생 도시, 프랑스 북동부 메즈 시에서 문화유산으로 확보하고 싶어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다). 근대 이후 문학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형사 사건의 도구. 1873년 7월 10일 오후 두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한 객실에서 발사된 총이다.

29세의 청춘 격정의 저격자는 금방 총을 놓고 환자를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후 함께 역에까지 갔지만 거기서 다시 상대방을 향해 과격한 행태를 보인 끝에 몇 시간 후 체포된다. 피습 당한 열 살 아래의 ‘파트너, 이제는 베를렌과 거리를 두려던 조숙한 천재 19세의 랭보는 총알이 스친 손목만 다쳤고, 기소도 하지 않았지만, 베를렌은 결혼 삼년 차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일 등 평소 비행 목록 죄질까지 가중되어 2년간 옥에 갇힌다. 낯선 땅 남 벨기에 한 감방.

그런데 시인은 놀랍게도 그 감방에서 영적 독서에 눈뜨게 된

다. 하고 많은 성인 중 ‘로마의 거지’ 브누아(베네딕도) 라브르(1748-1783)의 일생을 책으로 접하고 천성이 극도로 예민한 타락 시인은 감동을 받아 수감된 지 1년 후인 1874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회귀하기에 이른다. 시인의 시세계에도 일대전환이 온다. 영적 지각 변동. 출옥 후 발간한 1881년에 나온 회심(回心)이자 회심(悔心)의 『예지』 시집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 중 한 편의 시:

오 나의 하느님, 당신께선

오 나의 하느님, 당신께선 사랑으로 제게 상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아직도 생생히 아파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께선 사랑으로 제게 상처를 주셨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의 걱정하심이 제게 벼락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아직도 여기 천둥치는 듯 하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의 걱정하심이 제게 벼락을 내리셨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저는 모든 것이 하찮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 제 안에 자리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저는 모든 것이 하찮음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포도주 흘러내림 속에 저의 영혼 잠기게 하소서,
당신 제대 위 빵에 저의 생명 녹아들게 하소서,
당신의 포도주 흘러내림 속에 저의 영혼 잠기게 하소서.

아직 쏟아내지 아니한 저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고통 받을 자격조차 없는 저의 살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쏟아내지 아니한 저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마가 여기 있습니다,
경배 받으실 당신의 발 올려놓으실 받침으로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마가 여기 있습니다.

(...)

당신, 평화와 기쁨 그리고 행복의 하느님이시여,
저의 온갖 두려움, 저의 온갖 무지함을,
당신, 평화와 기쁨 그리고 행복의 하느님이시여,

당신께선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가난함을,
당신께선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하지만 제 가진 것을,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는 당신께 바칩니다.

이렇듯 회심한 현장 감방을 나온 후 시인은 강의와 출판도 도
모했지만 술과 병에 오래 전부터 찌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여전
히 떠돌다가 쉰하나의 나이에 1896년, 마지막 성사를 받고 숨
을 거둔다...

퇴폐파(데카당) 시인을 이처럼 극적인 회심에 이르게 한 성인
은 누군가. 유럽에서는 행려자들, 적응 불능자들, 순례자들의
수호성인이시다.

브누아 라브르, 성인은 1748년 벨기에에 가까운 프랑스 북부
지방에서 열다섯 형제들 만으로 태어났다. 엄격한 수도 생활을
진작 동경하여 19세부터 수도원 여러 곳 문을 두드렸으나 어리
다는 이유와 허약한 건강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입회 허락을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수도원의 원장이 '하느님은 당신을 다
른 곳에서 원하신다'는 완곡한 거절의 말을 던졌을 때 브누아는
깨닫는다. 자신은 하늘 아래 허허한 길을 홀로의 수도원으로 삼

게 될 것을. 그는 그날 이후 평생 혼자 순례하며 기도하는 단독 자적 수도생활을 시작한다. 7년간 3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순례를 통해 프랑스 전역은 물론이고 유럽 각지의 성지 성당, 그러니 남으로는 스페인에서 북쪽으로는 아마 네덜란드에 이르렀다 한다. 그 긴 위험한 길을 오직 두 발로 이어가며 노상(路上) 수도생활로 일관하셨다고 전해진다. 완전 적빈의 행색으로. 직업도 직위도 가져본 적 없는 오직 순례자. 하늘 아래 인생의 의미만을 하느님 안에서 묻고 찾는 구도자. 완전히 가난하였던 분.

성인이 가장 사랑한 도시는 일생 순례의 마지막 기착지가 된 영원의 도시 로마. 콜로세움, 초세기 순교자들의 피로 적서진 그 원형경기장을 성인은 밤마다 다른 거지들과 함께 지붕 삼아 벽 삼아 거의 7년을 기거했다(당시 콜로세움은 지금처럼 유적지 관리를 하지는 않았나 보다; 그 보다 백년 후 베를렌과 거의 동시대를 산 소화 테레사 성녀 때만 해도 이미 그곳은 자유 방문이 불가한 통제 장소가 되어, 순례 차 1887년에 그곳을 찾은 어린 테레사가 그 안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모험을 감행했는지는 자서전에 잘 나와 있다). 낮에는 성당을 찾아 ‘40시간 성체조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저녁이면 사람들이 적선으로 던져 준 먹을거리를 다른 거지들과 콜로세움 돌 벽 아래에서 나누면서. 나누는 빵이 많아진 기적들이 전해져 온다. 길거리 아이들의 눈길은 로마 골목마다 이 기인을 따라 다녔다.

1783년 성주간 수요일 한 성당 계단에서 서른다섯에 쓰러진 그의 시신이 수습되었다.... 4월 16일의 일이다(2014년 이후의 한

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날이다. 이날이 축일이 된 이 성인의 전구를 의지할 수 있겠기에). 한 결인의 사망 소식에 누구보다 먼저 거리의 아이들이 ‘성인이 돌아가셨어요!’라고 외치며 로마 골목골목에 알렸다 한다. 장례에는 교황 근위병들이 동원될 만큼 많은 인파가 운집하였다고. 세상의 물질주의에 성인은 온 몸으로 평생을 도전하다 돌아가신 것이고, 민중의 존경과 공경을 이처럼 진작부터 받았다.

이런 선종 90년 후, 느닷없는 권총 한 방이 한 시인을 감방으로, 감방은 시인을 성인과의 만남으로, 결국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이어 줄 줄을 성인이야 어찌 알았으리오만.

출옥은 하였으나 삶의 마지막, 여전히 신산했던 날들을 견뎌 가던 시인은 죽기 5년 전, 1891년 브누아 라브르가 시성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회심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프랑스 18세기의 유일한 광영’으로까지 여긴 거지 성인을 기리는 시 한편을 쓴다. 『예지』 시집 간행 후 그새 11년이 흘렀다.

시인의 종교시들은 『예지』에 담겨진 작품들만 일부 국내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참으로 기쁘고 기념할 날을 맞아 말년의 시인이 남긴 그 시를 여기 우리말로 처음 옮겨 본다.

시성식 날

교회는 좋으시므로
증오와 교만 인색과 온갖 죄로 얼룩진 이 세기에

감취진 자들 중에서 가장 감취진 자를 고향하시네,
세상사람 모르는, 온유한 자들 중 참 온유한 자를

신앙이 이끄는 대로 더없이 고초 겪으시고
고행으로 피 흘리고 탈혼으로 창백하며
뽑힌 백성들과 성인들과 함께 헛된 감각 벗어 던지고,
가난을 부인으로 여왕으로 섬겨 모시매,

또 다른 알렉시오 또 다른 프란치스코라,
사무치면서도 천사 같은 빈자 되셨으니,
온유 속에 복음 처절토록 실천하시도다!
이 모두 세상 향해 그르다 일깨우려 함이니
발이 금으로 되었다 믿는 그들, 진흙 발 실상 알려주시니,
교회는 자애로우시고 예수님은 강하시도다!

“가난을 부인으로 여왕으로 섬겨 모시매” 또 다른 프란치스코라
“사무치면서도 천사 같은 빈자” 되시어
저 오래 전 초세기 로마의 걸인 성인 알렉시오(+417?)의 재현으로
성교회의 성인들이 세세대대 이렇게 연대되시오니
브누아 라브르,
1770년 발로 찾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 무덤에서
제 3회 띠를 받아옴
저주 받은 시인을 회심시켜 그 권총 복된 탕 되게 전환 시키오니
만년의 시인이 한 편의 시에 담아낸 이 집약된,
거룩한 교회에 바치는 신앙고백이자
성인전에 무슨 해설이 더 필요하리오.
그저 감동에 젖어 감사하며
아멘하올 뿐.

성소후원회

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위해 부르시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수도성소는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회칙 1장)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모든 수도 회원들은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 안에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영적인 친구’를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끈벙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2-932457

국민은행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대 구 : 월배 수도원

☎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서 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해외 선교 후원회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 가운데로 가기 원하는 형제들은 관구 봉사자들에게 갈 허가를 청할 것입니다.” (회칙 12장)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따라 곧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재)천주교 곧베틀알 성프란치스코수도회

신한은행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민은행 : 295401-01-183491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 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 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 장 성당	오후 7:30	둘째 목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상황에 따라 후원회 미사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사 날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성모기사회 본부 사무실이
경기도 양평 수도원에서 서울 혜화동으로 이사합니다.
이사한 후의 연락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새 주소(도로명주소)로 바뀐 후 기사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사무실에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는 집에 오는 다른 우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해 주세요.

1) 은행에서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기

거래하시는 은행 방문 →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 사무실 전화 (자동이체 신청 알람)

2)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사무실 전화 (031-771-6134) → 자동이체 신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회기 크게 성장한 북방 선교 후원회는 수도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총본부의 권고에 따라 한층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어 해외 선교 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사지가 여러 권 올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성모기사지가 선교후원회, 성모기사회, 성소후원회에 가입하신 모든 분에게 발송됩니다. 이로 인해 기사지를 여러 권 받으실 수 있으니, 원하지 않으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31-771-6134)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경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오전 10:30	일광 삼덕 공소	051-721-4709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4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이태영) 059-21-0614-385

농협 (이태영) 150017-51-045351

농협 (천주교프란치스코수도회)

317-0007-3146-21

우체국 (천주교프란치스코수도회)

102566-01-00549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Woori Bank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702-08-193616

Beneficiary(수취인) : Park Young Cheo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7년 6월 통권 485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황재민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준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곧베틀알 프란치스코회
콜베마을(성모기사회)
양평군 서종면 중미산로 136
(우 : 12503)

전화 : 031-771-6134 (사무실)

팩스 : 031-771-2762

홈페이지 : www.ikolbe.com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